

광주의 봄 ... 민주화의 심장에서 5천의 심장이 힘차게 뛰었다



분수대를 돌아 금남로를 달린다 지난 1일 남도의 봄을 달리려는 마라토너들이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제 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폴코스·하프코스의 출발선이 마련된 옛 전남도청 일대가 마라톤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남자 폴코스 김수용 자신 최고기록 3분 앞당겨

여자부에선 국가대표 출신 이정숙 대회 3연패

‘디펜딩 챔피언’들의 질주가 돋보였다.

지난 대회 폴코스 남녀부 우승자인 김수용(37·대전), 이정숙(48·천안)씨가 제 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2시간37분23초에 결승 테이프를 끊으며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던 김수용씨는 자신의 기록을 3분 가량 단축(2시간34분28초)하며 정상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마이 페이스’ 전략이 성공했다. 2위권에서 페이스를 유지하던 김씨는 30km 지점에서 역전에 성공하며 다시 한번 3·1마라톤 정상을 밟았다.

여자부 지존 이정숙씨의 우승 질주도 계속됐다.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인 이씨는 2시간59분06초에 42.195km를 완주하며 대회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지난해 작성한 2시간56분35초보다 뒤쳐진 기록이지만 부상투혼 속에 이른 놀라운 성과다. 동계훈련 도중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당한 이씨는 김스를 풀자마자 대회에 참가해 우승 트로피를 움켜쥐었다.

3·1 마라톤 5번째 우승이기도 하다. 처음 출전했던 2008년 하프코스 우승을 차지하며 다크호스로 떠올랐던 이씨는 2009년 하프코스 2연패에 이어 폴코스까지 독점하며 여자부 최강자로 자리를 굳혔다.

남자 하프코스과 여자 10km에서도 2연패 주인공이 탄생했다. 하프코스 에 도전장을 낸 박승근(45·영양)씨는 1시간16분38초의 기록을 작성하며 남자부 2연패에 성공했다.

여자 10km의 송미경(44·김제)씨도 4분50초20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여자 하프코스 송미숙(44·군산)씨도 광주일보와 다시 인연을 맺었다. 송씨는 1시간30분09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질주를 끝내며 2006년에 두 번째 우승의 영예를 누렸다.

남자 10km의 김보건(25·전주)씨는 3·1 마라톤의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실업팀 입단을 노리고 있는 김씨는 지난 대회기록에서 55초 앞당긴 33분

3·1절 마라톤 각 부분별 입상자

| 순위 | 등번호 | 이름 | 기록 |
|----------|------|-----|---------|
| 폴남자 1위 | 517 | 김수용 | 2:34:28 |
| 폴남자 2위 | 411 | 송기산 | 2:37:43 |
| 폴남자 3위 | 290 | 김승환 | 2:43:48 |
| 폴여자 1위 | 570 | 이정숙 | 2:59:06 |
| 폴여자 2위 | 572 | 정순자 | 2:59:41 |
| 폴여자 3위 | 556 | 김정옥 | 3:03:39 |
| 하프남자 1위 | 1510 | 박승근 | 1:16:38 |
| 하프남자 2위 | 1537 | 김순열 | 1:17:48 |
| 하프남자 3위 | 1425 | 지원일 | 1:17:52 |
| 하프여자 1위 | 1565 | 송미숙 | 1:30:09 |
| 하프여자 2위 | 1585 | 박수희 | 1:31:43 |
| 하프여자 3위 | 1561 | 박금숙 | 1:32:51 |
| 10km남자1위 | 3378 | 김보건 | 0:33:40 |
| 10km남자2위 | 3294 | 김상기 | 0:35:41 |
| 10km남자3위 | 3293 | 신영근 | 0:35:52 |
| 10km여자1위 | 3126 | 송미경 | 0:40:50 |
| 10km여자2위 | 3026 | 윤미경 | 0:44:03 |
| 10km여자3위 | 3539 | 김경숙 | 0:44:39 |

40초에 10km를 달리며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남자 폴코스 우승자 김수용(37·대전)씨가 2시간34분28초의 기록으로 결승 테이프를 끊으며 골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 광일마라톤 뛰었다”인증샷 3·1절 마라톤에 참가한 여성참가자들이 완주메달을 목에 걸고 스마트폰으로 인증샷을 찍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호남 마라톤의 자존심... 코스도 진행도 명품이었다”

심재용 광주일보전국마라톤 총괄 심판

“호남 마라톤의 자존심을 지킨 성공적인 대회였습니다.”

심재용(광주시청 육상감독) 광주육상연맹 전무이사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심판 총괄을 맡아 성공적인 마라톤 대축제에 힘을 보탰다.

심 전무는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다소 쌀쌀한 날씨가 됐지만 뛰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기온이었다. 마침

비도 경기 시간에 맞춰 그치지 등 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됐다”며 “특별한 사고나 부상자 없이 성공적으로 대회가 끝났다.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협조해준 참가자들과 관계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부활한 광일마라톤의 명품코스는 이번 대회를 더욱 빛나게 했다는 평가다. 광주 도심을 달리며 영산강변

을 따라 광주월드컵경기장으로 들어오는 폴코스는 어느 대회 못지 않은 최고의 코스라는 것이 심 전무의 평가다.

심 전무는 “육상 대선배들과 보스턴 마라톤의 김재용, LA 김원식 등이 모두 광일마라톤 출신이다. 지난해 옛 전남도청을 출발선으로 한 폴코스가 부활했고, 올해는 하프코스도 옛 전남도청에서 출발하는 등 광일마라톤의 역사가 되살아났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심의 질주는 육상



인으로서 특별한 감회를 준다”고 밝혔다.

또 “뛰어난 코스와 함께 전국에서 실력 있는 마라토너들이 찾는 만큼 3·1 마라톤은 마라토너 사이에서도 유명세를 타는 대회다. 내년에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찾아 즐겁고, 건강한 질주를 하며 마라톤의 묘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Special

신양 허니문 고객 이벤트

저희 신양파크호텔에서는 대 고객 감사 이벤트의 일환으로 저희 호텔에서 결혼을 해주신 신랑, 신부님들을 위한 웨딩 멤버십 카드인 신양 허니문 카드를 발급하여 저희 호텔의 평생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항상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리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허니문 특전

- 객실이용시 40% DC
- 연회 및 레스토랑 이용시 10% DC
- 가족모임(돌잔치, 교회연 등) 각종 세미나 등(50명 이상 행사 시 현수막, 케이크 서비스)
- 직계 가족 웨딩 시 10% DC 휘트니스 이용시 40% DC
- 결혼기념일 당 호텔 방문 시 케이크 무료제공 및 레스토랑 이용시 50% DC (단 본인2인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제과 전품목 20% DC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